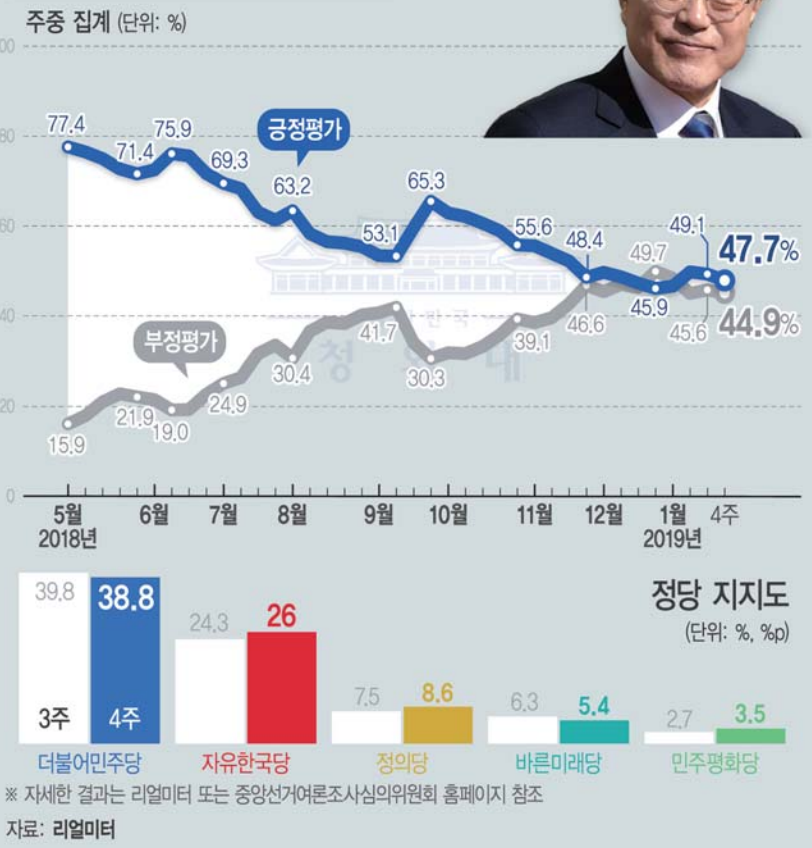


# 文대통령 지지율 47.7%...2주째 하락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1월21~23일 전국 성인 1,508명, 7.6%의 응답률  
표집오차 ±2.5%p(95%신뢰수준) / 의뢰기관: tbs



‘목포 투기 의혹’ 손해원 논란 영향...전주 대비 1.4%p ↓  
민주 38.8% 한국 26% 정의 8.6% 바른 5.4% 평화 3.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1.4%p 내린 47.7%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근 불거진 무소속 손해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1~2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공개한 1월4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7.6%)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7%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가는 지난주 대비 0.7%p 감소한 44.9%(매우 잘못함 27.6%, 잘못하는 편 17.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지난주 대비 2.1%p 증가한 7.4%를 기록했다. 공·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2.8%p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이번 하락세에 대해

“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서울 20대와 60대, 60대 이상, 사무직과 노동직, 학생, 보수층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30대와 40대, 무직과 자영업에서는 상승했다. 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해명을 본격화한 이후 호남에서 70%대로 결집하고, 30대와 40대가 60%대 전후로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p 내린 38.8%를 기록했다. 뒤이어 자유한국당(26%), 정의당(8.6%), 바른미래당(5.4%), 민주평화당(3.5%) 순이었다. 한국당은 전주 대비 1.7%p 올랐으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1.1%p, 0.8%p 각각 올랐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0.9%p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병준, 당대표 선거 불출마 “황·오·홍 출마 안 했으면”

최근 정치권에서 전대 출마설이 거론돼온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제가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기정사실화 된 2·27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전대 출마설이 거론돼온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제가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기정사실화 된 2·27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당권을 향한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고 이들 중심으로 원내의 관심과 움직임도 활발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오려려 저는 대단히 많은 점을 우려한다. 우선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 나올 명분 크지 않은 분들이 출마를 염두한 행보를 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폈다.

이어 “당이 겪었던 어려움과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분도 있고 관리 잘못한 분도 있고 당의 어려움을 방관하며 어떤 기여도 안 해온 분도 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당권 행보 내지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가 특정한 한 분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적극적인 활동하는 분을 예로 들겠다”며 황 전 총리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저는 출마를 하는 대신에 당 통합의 밑일이 됐으면 한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며 “총선 출마를 기약하고 당이 보다 새롭게 되는 데 앞장을 서주셨으면 한다. 만일 그러한 태도나 각오로 자세를 다진다면 저도 더 말단에서 똑같이 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당 대표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경선 출마를 고심하던 김 위원장이 불출마를 가닥을 잡으면서 전당대회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등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꾸러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서는 안상수·김진태 의원이 23일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당 안팎에서 후보군이 10여명에 달한다.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김무성 전 대표는 전대 출마의사를 접었거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황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 “이 분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 사실상 많은 분들의 고민이 황 전 총리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면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또 “친박·탄핵 프레임은 당내 통합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보수정치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

김 위원장은 “이 분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 사실상 많은 분들의 고민이 황 전 총리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면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또 “친박·탄핵 프레임은 당내 통합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보수정치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

## ‘사법부 흑역사’ 양승태 누구...상고법원 집착하다 추락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7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일평생 승승장구 ‘꽃길만 걷던 엘리트 판사’는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했다. 1970년 대학 졸업과 함께

은 해 9월 특허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돼 대법원에 재임했다. 2009년 2월부터 2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제 15대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임명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안정 지향적 판결로 보수 성향이 뚜

법관 시절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86년 간첩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강희철씨 사건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총 6건의 간첩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들은 재심에서 조작 사실이 밝혀져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관 시절인 2009년 1월에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반국가 단체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실제 활동이 국가 존립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대법원장 임기 중 원로법관제를 실시해 법관 정년 보장 길을 열었고,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를 시작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인원화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면 시행됐다.

상고사건과 고위 법관 인사 적체 해소 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결국 청와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

뉴스스

### 1975년 법관 시작...2005년 대법관 임명 2011년 15대 대법원장...안정·보수 지향

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을 거쳐 최종원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03년 2월 법원행정처 차장직을 맡았다.

하지만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제정에 반대하며 판사 160명이 연관장에 서명하고 사법개혁을 요구한 이른바 ‘4차 사법피동’으로 갈

렷해 이명박 정부 ‘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사법부 사명은 법치주의를 구현해 일관성이 유지되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자유민주사회 가장 귀중한 가치인 개인의 가치가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각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며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수 성향은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